

三

이 出土 遺物들을 綜合考察하여 보면 金絲는 衣裳에 使用되었던 것을 알겠으며 金箔片은 上述한 바와 같이 木棺外表全面에 부쳤던 것을 짐작 하겠고 鐵鎗은 木棺下板에 靑銅鍍과 鍍金圓頭鎗은 木棺左右와 上部에 박 지 않았던가 推測된다. 다음에 棺裝飾金具는 百濟王陵에서도 이미 四枚 가 出土되었으나 어디다 使用한 것인지 未知數이었다. 그런데 出土된 그 金具가 完形에 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形態가 出現되었다. 이 金具는 木棺 天蓋를 덮을 적에 開口된 木棺에 裝飾金具에 鍍金되지 않은 部分 까지 插入하여 棺內에서 固定시키고 天蓋板은 그 金具가 들어가는 部分 만 削出하며 雲形文은 天蓋厚만 차지하지 않았던가 憶測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木炭片이 出土되는 데는 아마도 盜掘時에 쓰여진 것이 더 有力視되 는 것이다. 그리고 玄室除土作業에서 百濟土器片이 一點이 나왔다.

이 古墳의 位置는 六基墳의 上位에 있으며 앞에 보이는 展望이 廣闊 하고 白馬江과 周圍山勢가 一眸에 들어오는 風景이며 左右의 靑龍 白虎 山脈은 마치 風水說을 加味한 듯한 것과 背後의 山勢 또한 壯重한 來龍 은 正南向한 王陵을 構築하게 하였다.

끝으로 添記할 것은 東下塚과 中下塚 中間線若干後側에서도 □形石槨 이 發見되었는데 羨道가 없는 玄室은 長이 一·七四cm 高 九〇cm 幅 七六 cm 이었고 內部에서는 다만 鍍金銀 五個만이(陳列中) 出土되었고 其他遺

物은 없었다. 그런데 壙內는 棺臺가 없고 다만 方一·二尺의 埽이 二列 로 깔리되 各 五枚씩으로 되고 南方에는 下水溝로 볼 수 있는 土層의 깊이가 七·二〇cm 이었다고 함은 이 古墳도 地下二m에 묻혀 있었음을 밝혀 둔다. (六六·二一·一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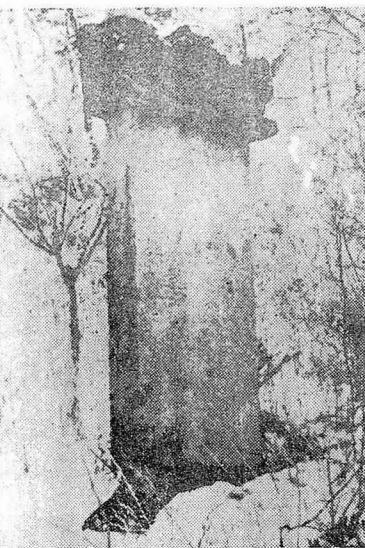
鳴鳳寺 慈寂禪師 凌雲塔碑

— 新羅五岳調查記 第五 —

秦 弘 燮

新羅 五岳 學術調查 太白山地區 第二次調查의 最終行程으로 鳴鳳寺에 到着한 것이 二月二十四日이었다. 이번 調査에는 降雪로 因하여 調査 隊員은 적지 않아 苦楚를 겪었지만 筆者와 崔淳雨、羅炳旭、兩委員은 二十四日 榮州에서 先發 調査隊員과 合流、醴泉을 經由하여 殘雪을 밟 으며 上里面事務所所在地에서 徒歩로 二十里 절에 到着한 것은 午後八時 頃이었다.

鳴鳳寺는 慶北 榮州郡 上里面 鳴鳳里에 있다. 碑文 冒頭에 「高麗國尙 州 鳴鳳山境 淸禪院」이라고 있어 寺名은 境淸禪院이지만 主山이 鳴鳳山이 므로 山名을 따서 寺名으로 俗稱한 모양이다. 背後의 山峰에는 李朝文宗 의 胎室이 있었으나 여기 使用되었던 石物은 寺內築臺에 利用된 것이 相當히 많고 胎室 現 大雄殿 옆으로 移置되었다.



碑는 寺後의 小丘 에 세워져 있고 螭 首와 龜趺를 具存하 고 있다. 龜趺는 碑 座附近까지 埋沒되 어 全貌를 알 수 없

으나龜首는切斷된 듯하고螭首는左右로雙龍을 두고中央에方形題額이 있는通式인데彫風이 제법 불만하며題額內의字劃은磨減로알아볼 수 없다. 碑身은花崗石으로字劃에磨損을 입고處處에石衣가 덮여 있으나精讀하면碑文의大部分은判讀되리라 고 생각된다.

慈寂禪師는新羅憲康王八年三月(八八二)에出生하여眞鏡大師에게師事하였다. 王朝가 바뀐後에도高麗太祖 또한 그禪德을欽仰하는바 있어龜山禪院에 있게 하였다. 이곳에 있기에五年, 天福四年, 高麗太祖二十二年十月一日(九三九)이 곳에서示寂하니俗年五十八, 法夏四十이었다고 한다. 立碑의年次는天福六年으로서前面에碑文이 있고碑陰에는官帖과在家弟子의名이 있으며 그中에는「福聖大王」即高麗太祖도列記되었다. 官帖에는漢文과吏讀文이併記되어麗代金石文中吏讀을使用한例로서는가장 오래된 것이라 한다. 碑文은崔彥撰이고書는古書의集字이다라고 하는데古書가 무엇인가르키는 말인지不明이지만字劃이分명한行書이다. 本碑에對하여는葛城末治著朝鮮金石攷에解說이 있고朝鮮金石總覽補遺에碑文이 실려 있으나이번에現地에서實査를 하게 되었고拓本에依하여碑文判讀도 있어야하겠으나零下의氣溫으로拓本이不可能하여龜趺의發掘과 아울러再調를期하겠다.

本碑가「塔碑」로 되어 있어이附近에「凌雲之塔」이 있음직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고寮舍앞에移置된浮屠의一部分가 남아 있을 뿐이었다. 그것도臺石의一部分, 塔身, 蓋石 등으로完形이 아니며形態는八角圓堂의形式을 따랐지만 이것이 곧凌雲塔이 될 수 있는根據는 없고 다만同寺域內에서는浮屠로서唯一한 것이었기에一旦 그렇게比定을 하여 보았을 뿐原位置의探索과 아울러不足된部材를 찾아 좀 더細密한調査가 있어야 할 것이다.

碑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碑座 一一八cm x 四〇cm
 碑身 高一八四cm 幅九六·五cm 厚二〇·五cm 字徑二cm
 螭首 高五四cm 幅一一八cm 厚四五cm

蔚山 東竺寺와 三層石塔

朴 日 薰

蔚州 吐含山 宗령이 南으로 뻗은 南端은蔚山 方魚津에 臨하였고西쪽은蔚山灣이 깊숙히 들어와 半島를 이루었다. 東竺寺는蔚山서 方魚津行路의 途中蔚山灣으로부터 半島를 橫斷하여 東海岸에 이르기 直前인 南牧里 三角地에서 北쪽 約二km 山峰기슭에 南向으로 자리잡고 있다. 寺僧에 依하면 前方 海岸 尾浦里(미역골 或은대추밭들)에 東竺寺가 있었을 때는이 절이 庵子였으나 丙子胡亂때 燒失된後이 庵子는 東竺寺로 되었다 한다. 「東竺寺」란 寺額은 불어 있으나 어쩐지 아담한 小規模의 庵子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느낌을 주었다. 元來 東竺寺는 遺事(卷三, 皇龍寺丈六條)에 「新羅第二十四代眞興王...至己丑年周圍墻宇至十七年(王의 三〇年 五六九年)方畢. 未成海南有一巨紡. 來泊於河曲縣絲浦今蔚州也檢看牒文云西竺阿育王聚黃鐵五萬七千斤黃金三萬分 別傳云鐵四十萬七千斤 將鑄釋迦三尊像未就載缸泛海而祝曰願到有緣國土成丈六尊容拜載模樣一佛二菩薩像縣吏具狀上聞勅使卜其縣之城東爽垺之地創東竺寺遊安其三尊輸其金鐵於京師以大建六年甲午三月寺中記云癸巳十月十七日鑄成丈六尊像一鼓而就重三萬五千斤入黃金一萬九十八分二菩薩入鐵一萬二千斤黃金一萬一百三十六分安於皇龍寺中略: 像成後東竺寺三尊佛亦移安寺中...」이라 했으니 前記 尾浦里가 當時 河曲縣絲浦였음을 짐작할 수 있고 바로 여기에 西竺 阿育王이 보낸 黃鐵五萬七千斤과 黃金三萬分이 실린 배가 漂着하여 新羅皇龍寺 丈六尊像을 鑄造하기 爲하여 黃鐵과 黃金은 京師로 輸送되고 함께 실려온 一佛二菩薩像의 模樣을 安置하기 爲하여 東竺

